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그리운 내고향 ②



나의 고향집

야다리 지나서 덕바위고개 넘어 과수원이 나의 고향집이다. 뒤에는 산이 앞에는 과수원이 있었다. 사과, 배, 앵두, 토마토, 딸기 등 모두 재배했고 채소도 심어서 그때 그때 따다가 반찬으로 해 먹었다. 그리운 내고향 나의 집 언제나 갈 수 있을지. 통일이여! 어서오라.

- 김금옥(1933년 생, 개성시 덕암동 865)

통일교육원이 진행하는 '그리운 내고향' 사업에 출품된 그림과 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민족화해

11 2016
November/December
12 Vol.83

권두인터뷰

염수정 추기경

시선 대 시선

청년, 통일과 한반도를 말한다



Contents

2016 November / December_Vol.83



02 포토 에세이

아이들이 보는 통일은?

04 권두 인터뷰_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전쟁의 승리가 아닌, 평화의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 기획연재_ 통일로 가는 길 ⑪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가능한 인도적 사안부터 접근해야 | 최대석

14 시선 대 시선_ 청년, 통일과 한반도를 말하다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양성 존중 받는 새로운 접근 필요

20 이슈앤포커스_ 한반도 분단구조 고착화를 극복하려면

- 한민족생태계의 단절과 '분단정치'의 극복 | 조한범
- 미중의 이해충돌, 안보협력과 위기관리능력 강화해야 | 박용한

28 지금 북한은

북한 부동산 시장, 중국 자본 유입과 북 관료 참여로 확대·심화돼 | 정은이

32 진단

북한 수해지원과 남북관계 | 김민서

36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_ 조찬조 민화협 시카고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재외동포사회와 힘을 모아 민화협 가치와 통일의지 국제사회에 알려야



민족화해 2016년 11 + 12월호(격월간, 통권 83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발행인 홍사덕

편집인 공용철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김성경, 박인휘, 이상준, 전영선

편집장 박지웅

편집부 이현희, 염규현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COVER STORY

10월 2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2016 통일공감 걷기대회'에 참가한 어린 아이가 파랑 풍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아이의 웃음처럼 행복한 통일 미래가 다가오기를 바라본다. ©서울신문

40 기획_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어떻게 볼까

- 남이 보는 북한사람, 남북관계의 악화로 부정적 인식 확대 | 김성경
- 북이 보는 남한사람, 친근함과 적대감 공존 | 강동완

48 지상중계_ [통일공감포럼] 제3차 통일공감대화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54 문화모니터

- 사진으로 북한 읽기 ② | 변영욱
- 통일연극 <자강도의 추억> | 문현예
-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⑦ | 이상현

60 현장 | 1020통일공감기자단

-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_ 통일을 품은 두 개의 씨앗, 재외동포와 청년세대
- 2016 통일문화축제_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의 희망을 찾는 여정
- 통일공감 콘서트 & 걷기대회_ 통일의 선율을 느끼고, 남북의 하나 됨을 꿈꾸며 걷다

68 민족화해 네트워크

70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2 독자 의견



아이들이 보는 통일은?

“아랫집 윗집 사이에 올라리는 있지만
기쁜 일 슬픈일 모두 내 일처럼 여기고
서로 서로 도와가며 한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 집 너희 집 사이에 올라리는 있지만
잘못이 있어도 모두 용서하고 타일러
서로 서로 도와가며 형제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아이들의 입으로 불러 진 동요
‘서로서로 도와가며’ 처럼
아이들과 통일을 나눕니다.



권두 인터뷰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약력
 1943년 12월 5일 경기도 안성 출생
 1970년 12월 8일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졸업·사제수품
 2002년 1월 25일 주교수품
 2002년 10월~2012년 5월 서울대교구 총대리
 2012년 5월 10일 ~ 현재 서울대교구 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2014년 2월 22일 추기경 서임
 2014년 5월 22일 ~ 현재 교황청 성직자성·인류복음화성 위원

전쟁의 승리가 아닌, 평화의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나라에선 세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우리사회의 큰 어른, 존경받는 종교인으로서 염 추기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평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 염 추기경은 용서와 만남으로 평화로운 통일과 남북 주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던진다.

대담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얼마 전 모 언론이 조사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위로 뽑히셨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가장 관심을 두고 있으신 일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Q 추기경님께서 가르침을 전달하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중요하고 또 무거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러한 길을 걷게 되신 개인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A 제게 저의 직무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면 그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이어야 하겠지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우리 민족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찾아온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고려하면 지난 70년간 우리 민족은 비교적 슬기롭게 어려움에 대처해 왔습니다.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삶의 질도 높아져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A 저의 5대조 할아버지인 파주 염씨 의암공 염덕순(요셉, 1768~1827) 웅은 순조 때의 학자로, 당시 당상관 통정대부라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학문인 실학(實學)을 연구하다 스스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재산과 관직까지도 버리고자 결심했습니다. 배티성지 쪽으로 몰래 도망가 가족과 함께 지낼 안전한 곳을 물색하던 중,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 교우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 충북 진천에 있는 ‘사기장골’의 교우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침내 그곳에 자리 잡고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넘도록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발전하고 공존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1970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어 동생 염수완 신부(1975년), 염수의 신부(1981년)가 마지막으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막내 염수의 신부가 사제품을 받던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과묵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내가 소원했던 것을 오늘 하느님께서 다 이루



2014년 개성 방문 당시 남방한계선 철책 앞에서 북측을 바라보고 있는 염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어 주셨다”며 “세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40년 가까이 기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잉태하셨을 때부터 하느님께 봉헌하고 사제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선조들과 은인들이 저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에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Q 추기경님께서는 2014년 한국 추기경으로는 최초로 개성을 다녀오셨습니다. 분단 선을 넘어 직접 북한 근로자를 만나고 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성공단을 다녀오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선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남북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물건만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같은 문화와 언어로 평화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공존과 번영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

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북관계의 개선 및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준비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은 그러한 의미에서 희망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현장에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Q 최근 천주교에서도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활동을 하고 있고, 추기경님께서는 평양교구장 서리도 맡고 계십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천주교 차원의 과제와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A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북녘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북녘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을 신자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북녘본당 갖기 운동’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북녘땅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빌어주는 구체적 실천을 하자는 취지에서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주변국과 민족 내부의 아픔으로 오랜 시간 분단 상황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전파하도록 영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북녘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서로 미

워하고 대결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는 남북 간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Q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운 시기마다, 종교인들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남북 간 종교교류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종교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움이 증폭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인색함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자 노력하지 않는 편협함,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닫힌 마음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무엇보다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강론을 통해서 용서가 남북 간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예수님은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문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비실용적이며 심지어 때로는 거부감을 주는 것이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기쁨과 화해의

은총을 이웃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에 요청하셨듯이 “같은 언어로 말하는 형제자매이고,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할 것입니다.

Q 현재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합니다. 평화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A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군사·안보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정말 암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조치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위기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강경한 대응도 준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되, 때로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폭력은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을 남길 뿐, 절대로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으로 인한 잔인하고 끔찍한 참상을 체험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고, 무죄한 이들의 희생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그들의 걱정과 고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어볼 기회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얼마 전 전쟁에서 승리하면 폐허가 남지만, 평화에서 승리하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닌 평화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가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올해를 ‘자비의 희년’(2015년 12월 8일 ~ 2016년 11월 20일)으로 보내며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자”는 영성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땅을 물려주려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반쪽을 기꺼이 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Q 민화협에서 발간하는 잡지의 제목도 ‘민족화해’인데요, 남북관계의 악화와 대립이 지속되면서 ‘민족화해’를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4 우리가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러한 화해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와 불신 등은 너무 깊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민족화해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화협이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현명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Q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분단과 대립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먼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단체제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후유증은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제를 생각할 때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전 시대의 잔재인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이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문제를 다룰 때 이데올로기적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통일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 민족 공동의 번영 문제,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결이 가능해질 겁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갈등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공존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욱 익숙한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분단구조의 지속이 우리 민족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 주민 간 마음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4 무엇보다 만남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통
합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 문제입니다. 남북 주민들
은 오랜 시간 동안 이질적인 정치와 사회문화 속에
서 살아왔어요. 따라서 남북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



는 이들도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미사에서는 성체를 모시기 전 서로에게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의미는 타인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평화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됩니다. 이 평화의 인사는 평화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종교의식입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에서 오는 관계의 평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산가족들과 북한이탈주민들 그리고 군사적 충돌로 인해 죽어간 군인들과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분단이 가져온 비극을 온 몸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며 기적을 가져옵니다. 현재 남북한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의 위협마저 느껴지는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겸허히 자신을 반성하고 기도할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애를 갖고 인간적인 관계를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준비는 무엇일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진리를 추구할 때 우선적 목표로 삼는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물리치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만으로 평화가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평화의 또 다른 측면인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대자연과 나와의 관계, 타인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히 소통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관계의 평화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나와 함께 살아가

기획연재_통일로 가는 길 ⑪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가능한 인도적 사안부터 접근해야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나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어떤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인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식량부족과 의료보건 체계의 붕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종교 박해 등 생명권의 위협과 자아상실의 상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납북자,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도 본질적으로 인권사안입니다. 그리고 해외 탈북민의 강제북송, 해외 북한근로자 착취 등도 인권차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인권 문제는 UN과 국제 및 국내 NGO 등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UN 차원의 다양한 결의안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2014년 2월에 공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는 기존의 북한인권 논의 및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권위 있는 문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COI 보고서는 기존의 단순한 인권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 국제형사법적 검토를 포함한 상세한 분석을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연합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인 정책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사회내의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사회적 합의의 결여,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시행이 향후 대북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큼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우리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에서 북핵문제 해결만큼이나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이 여야합의로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야당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사회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은 국제사회와 국내 NGO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해 내정간섭과 적대국가

의 음모라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COI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결론에 대해서 “허황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서구적 인권 잣대에 대해서도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형사법 개정 등 일부 법률체계 정비 등은 있었지만 체제생존과 직결되는 정치범 문제 등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접근의 일차적 목표는 ‘실질적인 개선’

따라서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우리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새롭게 접근함에 있어서 그 일차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개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보편성에 입각한 비정치적 접근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했을 때 단 한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이라는 명칭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유엔

에 가입했지만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단 한 차례도 도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 규약들의 보편적 원칙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정 정부의 입장에 따라 선호와 취사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 또는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인권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내의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일관성 있게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추구해나갈 유일한 원동력이자 출발점입니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략적-실용적(strategic-pragmatic)으로 접근할 것을 제기합니다. 이는 시급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크며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고, 인권개선 효과가 큰 과제들부터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국군포로, 납북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우선해야 합

정부가 공식적 차원에서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의 부당성을 제기한다면,
민간은 인도적 지원 등 비공식적 또는 비공개적 차원에서
북한당국과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합니다.

니다. 이들 사안들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면서 고령화로 인해 시급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동서독이 동독 정치범 송환 과정에서 실시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개선 효과가 큰 인도주의적 사안을 풀어야

둘째, 대북지원도 인권적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대북지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규모 개발지원과 경제협력 여부입니다.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인 이상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간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도 분배의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 효과와 파급성이 큰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과 보건의료, 영양개선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북부지방의 수해에 대한 긴급지원도 제3국을 통해 인권적 차원에서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의 전달과 북한 내 인권정보의 수집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정보는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을 형성하는 기본바탕이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NGO 및 유엔 산하 인권기구들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 NGO의 북한인권 캠페인과 옹호사업에 대

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10여 개의 북한인권 NGO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부족 상황에서도 묵묵히 북한인권정보 수집, 국내외 캠페인, 대북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조금만 높아지면 이들의 활동역량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주민에게 유입되는 외부정보들은 예기치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투 트랙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식적 차원에서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의 부당성을 제기한다면, 민간은 인도적 지원 등 비공식적 또는 비공개적 차원에서 북한당국과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인권법의 시행과 함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부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최대석은 미국 클레어먼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이며 정책과학대학원장도 맡고 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과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담(시계방향)

박채원 여대생통일연구학회 회장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황지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사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양성 존중 받는 새로운 접근 필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2016년은 남북 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기성세대의 우려는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 시대 청년들의 진정한 고민은 무엇일까. '시선 대 시선'에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네 명의 청년을 초대해 우리시대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정리 송하은 1020통일공감 기자단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사회자(김성경) 먼저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우리 시대 청년들은 학점, 스펙, 취업, 경쟁, 꿈, 미래 등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백경훈 역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공부하고,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안정된 직업도 가지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르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 끼어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내 사명과 소명이 무엇일까요 고민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부모님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우리는 어린 시절, 그나마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장 닥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황지은 스펙을 많이 쌓는 자체가 미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일자리를 갖게 되더라도 단기직 혹은 비정규직이 많고 미래에 대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스펙을 쌓는 데만 치중하게 된다.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자꾸 스펙만 쌓게 되고 학점만 채우게 되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꿈은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

사회자 분단의 고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 현 남북관계와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박채원 주변 청년들은 '웬 통일이냐'고 한다. 분단 70년이 지나 이미 두 세대가 지났다. 지금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되었다. 청년들이 민족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

리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통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교류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통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듣고 나니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대생 통일연구학회를 만들게 되었다.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과 통일의 관심사나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줄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영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기 전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늘 다음 질문이 북이냐 남이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쪽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에서 우리를 남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북한, 남북관계, 내가 겪고 있는 그 혼란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청년들에게는 통일이라는 것이 개념적 단어라고 느껴진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것 같지 않다. 적대 관계나 대치, 군사적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럼 한반도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문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개념적으로 느끼고 큰 일로 여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백경훈 청소년들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수업을 나간 적이 있다. 청년세대가 통일에 반신반의하고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더 어린 청소년들

을 만나보니까 이들은 더 하다는 생각을 했다. 통일을 해야 하느냐 질문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막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확실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세대도 통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데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더욱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우리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100이라면 지금 청년들은 50이고 다음 세대들은 더욱 낮아질 것 같다. 통일도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다른 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해 접근해야

사회자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북핵실험으로 인한 강한 대북제제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백경훈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남북관계 경색의 큰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묵함지뢰사건 등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 조금 더 등을 돌린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전쟁이 나면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예전에 비해 그렇다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영아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적은 없었다. 또 종북 프레임이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에 의혹을 갖는 것 자체로 종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게다가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분위기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지은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핵실험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궁금해 하는데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 벌을 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한다. 원인과 배경에 관심이 없다보니 남북관계가 극심한 단절에 시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나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박채원 청년들은 남북관계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않는 것 같다.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또 너무 이분법적으로 상황을 나누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종북이다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반화가 횡행하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대다.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이분법적 접근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북한인권문제 접근 ‘방법론’ 신중히

사회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다.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백경훈 근본적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정권이 변화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해나가야 한다. 인권 모니터링 등 이 문제에 관련해 북한 정권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부분에 대한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댈 필요가 있다.

황지은 우리의 칼날이 정권을 향한 건지 주민을 향

한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인권법을 타자에 의한 체제 전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 정권에 대한 압박이 없을 때 오히려 북한이 대화와 소통에 나설 때가 있었는데 정권 압박이 오면 공격이나 레짐 체인지로 받아들여 ‘이건 우리 국내 문제다’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그럼 벽에 대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과 우리정권 그리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사항부터 차근차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영아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은 계속 있다. 미국,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 인권개선에 대한 목적으로 활용된 것 같지 않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변국에서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인

권을 증진할 의지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 인권법 시행 이후 북한에 수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모두 차단했다.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 인권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인권법 제정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백경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 세계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을 벗어났으니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기준에서 제재를 해야 한다.

박채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남북교류와 대화를 통해 접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강한 압박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신치 못한다. 냉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각국이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한 입장을 취해야만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해

사회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민이 약 3만 명이다.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길 바란다.

황지은 탈북민이 사회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도 벽이 생긴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가 어떤지 알고 그들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박채원 내가 만약 다른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안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해보자. 누군들 그 사회에 속하고 싶겠는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오래 전 탈북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 아주 힘들게 탈북했고 극도로 가난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을 계속 그렇게 조명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다른 렌즈도 필요할 것이다. 가장 기본은 소통인 것 같다. 지난 해 ‘유니 인사이드’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100명이 넘는 남한 친구들과 탈북친구들이 모여 파티를 했다. 행사에서 누가 탈북민인지 누가 남한 사람인지 모른 채 번호를 나눠 받았다. 랜덤으로 조를 엮었는데 ‘통일이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억지로 소통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

이영아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남한에 왔으니 알아서 잘 적응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남북의 주민들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배워야한다. 이러한 자세가 많이 부족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던 것 같다. 지금 남북관계가 적대적이고 서로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된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대안 필요

사회자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강조했다.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도 말해 달라.

백경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중국 등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것이 무조건 정당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 공조 속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설계가 필요하다.

박채원 북한의 도발은 어찌 보면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몸값을 올릴 것인지, 언제까지 그걸 받아줘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지는 공감의 힘도 무

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런 담론들과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필요하다. 남한주민들도 통일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탈북민 3만 명이 들어와도 다시 최대 5천명이 나가는 현실에서 탈북자들을 어떻게 정착지원 해줄 것인지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은 제가 뭔가를 해내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이러한 고민들은 계속 안고 갈 것 같다. 후배들이나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영아 우리 사회의 평화운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더욱 평화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내가 살 길도 막막한데 평화가 무엇이나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통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할 것 같다. 평화가 강한 무기로 지켜지는 평화인가 아니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인가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르다. 우리는 계속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분단체제로 인해 한국 사회 내 뿌리박혀있는 군사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캠페인이 더욱 더 필요하다.

황지은 어떤 조직의 하나 된 주장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 제시한 여러 개의 방법을 놓고 피드백을 거쳐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일도 하나의 문화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윗세대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100이라면 우리 아래의 세대들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

서 통일 문제가 문화로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고 생활밀착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경훈 북한 정권에 대해 필요한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각자 위치에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다가를 통일이라면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제 경우에는 NGO단체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콘텐츠를 만드는 등의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제 자리에서 통일 준비를 해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려 한다.

사회자 모두들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꿈꾸는 사회, 한반도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마치겠다.

황지은 내가 살아갈 한반도는 개개인의 자유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백경훈 내가 꿈꾸는 한반도는 스펀지였으면 좋겠다. 지금도 앞날이 어떨지 예측하지 못하고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더 빨리 변할 것 같다. 그런 시대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영아 내가 꿈꾸는 한반도는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이다.

박채원 내가 꿈꾸는 한반도는 모두가 귀한 세상이다. 🌈

한민족생태계의 단절과 ‘분단정치’의 극복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태계는 생물과 무기적 환경요인의 복합체로 정상적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공존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민족생태계에 적용할 경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 생활권의 민족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환경적 요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정상적인 민족생태계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 구성부분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족생태계가 특정한 요인으로 단절되거나 파괴될 경우 민족공동체 내부에는 여러 가지 비정상성들이 발현되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바로 민족생태계 단절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비정상성

‘한민족생태계’ 개념은 분단구조와 생태계 개념을 접목시킨 것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생태적 단절의 비정상성과 창조적 복원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에서 목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은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며, 한민족 생태계의 복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와 체제 간 이질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민족생태계의 복원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분단체제의 극복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체제의 한반도는 정상적인 민족생태계로 볼 수 없다. 지리적 단절로 인해 대륙에 속한 한국은 인위적 섬으로 전락했으며, 5000년 동안 지속된 단일 생활권은 단절되어 상호 이질적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좁은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협

에 놓여 있으며, 200여 만 명의 중무장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도 한민족생태계 단절의 결과이다. 실패 국가 북한과 남남갈등과 신뢰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모습은 오늘날 한민족생태계 단절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망 138명, 실종 400명에 2만여 채 가옥 전파, 도로와 송전시설 등 기반시설 파손 등. 이는 평양주재 국제기구가 전한 금년 9월 초 함경북도 수해 피해의 참상이다. 북한 매체도 1만 1천 600세대의 가옥이 파괴되고, 6만 8천 9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민 30여만 명에 사망 실종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일한 비가 내린 중국 측 지역의 사망 실종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함경북도 수해는 남벌로 인한 민둥산과 장기간 치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로 북한이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민낯’이다.

참혹한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2차례나 발사했다. 북한이 사활을 걸고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10월 25일 클레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말대로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 수단(ticket to their survival)’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이면에는 남한과 체제경쟁에서의 패배라는 엄연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북한의 국력격차가 수십 배 이상으로 벌어진지 이미 오래고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보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조적인 경제위기와 만성화된 식량난은 집권 5년 김정은 정권의 성적표다. 최고 엘리트들의 유혈 숙청에 이어 일반주민들에 대한 수시 공개처형으

남북한의 국력격차가 커지고,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보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는 집회 현장 ©연합



남북한 체제의 공존상황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일을 의미하게 된다.

장기간의 접촉과 경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결국 북한체제의 정상화와 남북한의 상호 수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로 공포의 정권안정을 이루고 있는 김정은 치하의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각인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금년 7월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를 적시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포함된 제재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인권범죄자로 국제적으로 낙인된 것이다.

분단 체제가 지속된 70여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의 비전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어디로 보나 북한이 실패국가라는 낙인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신뢰의 위기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지닌 한국이 전 근대적인 이념대립 및 사회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분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체제경쟁의 승리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권위주의 정권은 저발전 상태의 대중적 상실감과 이념적 대립구조를 기반으로 성장 지상주의와 압축적 발전을 추구했으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열풍은 한국의 발전된 위상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병행하여 ‘압축적 문

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분단 체제의 비정상성이라는 구조적 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빠른 성장을 위해 국가 자원을 특정 분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었으며, 효율성을 이유로 분배의 요구는 장기간 배제 당했다. 체제경쟁의 승리를 위해 사회의 다양성은 통제되었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요구들은 장기간 억제되었다.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삶의 질은 OECD 하위권을 넘지 못한다. 한국의 공동체 지수는 OECD중 최하위 수준이며, 높은 자살률과 이혼률은 성공한 한국의 ‘어두운 이면’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갈등이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경직성을 배태했으며, 사회적 관용과 대화, 타협의 문화를 억제했다. 반면 강요와 배제가 한국사회의 지배 문화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획일성이 다양성을 압도했다. 배제와 강요의 문화는 한국적 톨레랑스의 형성을 근원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사회가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보혁진영으로 양분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고비용 구조는 진영 간 사회갈등이다. 장기간의 분단체제는 보혁 간 진영갈등을 구조화함으로써 국민적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건, 사드배치 등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이 제기될 때 마다 진영 간 극명한 입장차가 노정되고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남남갈등으로 대표되는 문제이다. 각종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현안

의 구체적인 진위여부 보다는 진영 간 입장차가 종국적으로 중요해지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반복됨으로써 국민적 피로감과 아울러 사회적 고비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행복하지 않은 성장과 신뢰의 위기’ 분단 70여년 한국의 자화상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재발견

한민족생태계의 단절로 인한 구조적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단구조로 인한 비정상성들이 남북한에 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세계차원의 노력은 눈에 띄지 않으며, 남북한 간의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남 친화력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인도적 위기에 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은 냉담하다. 이는 분단체제를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남북한의 ‘분단정치’와 관련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제국주의와의 대결과 ‘남조선 해방’을 3대 세습과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남 적개심의 고조와 제국주의와 대결구조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통해 위기구조를 향상화 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김정은에게 중요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북한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정권안보이다. 김일성 김정일 민족을 강조하고 자신들만의 평양시간을 만들어 낸 것은 분단구조의 고착화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의 대북정책 정쟁화 구조 역시 분단정치의 재생산과 관계가 있다. 점진적 합의형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함없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권 대북·통일정책의 논리구조 역시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이슈들은 모든 정권에서 국내정치적 정쟁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소위 ‘색깔론’, ‘북풍, 총풍’은 이를 대변하는 사건들이다. 역대 정권 마다 통일담론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미진한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분단정치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이다. 체제경쟁의 실패와 정권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체제가 통일을 주도할 가능성은 난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다시 한 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진보와 보수, 여야의 합의를 거쳤으며, 화해·협력 단계라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장기간의 분단과 이질화가 내재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인위적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 남북한 체제의 공존상황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일을 의미하게 된다. 장기간의 접촉과 경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결국 북한체제의 정상화와 남북한의 상호 수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북한 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현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비핵화가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궁극적 방안이라는 점과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공존 공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은 체제생존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주적인 북핵 대응 체제 구축과 아울러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을 토대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한범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평가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중의 이해충돌, 안보협력과 위기관리능력 강화해야

박용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지난 9월 29일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에 관한 연설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투자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카터 장관은 2020년까지 해군과 해외파견 공군 장비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해 ‘아시아 중시정책’의 상징적인 조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시아 중시정책을 강조한 연설이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정박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력 우위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어떤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략적 중심, 중동지역 전쟁 후 아시아로 회귀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 종결 이후 군사적, 전략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아시아 중시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복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Foreign Policy(2011년 11월호)’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Century)”에서 중동

이 아닌 아시아에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도 아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듬해 1월에 공개된 ‘신 국방전략’에서도 전쟁 종결에 따라 더욱 광범위한 도전과 기회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국방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동 지역의 전쟁 종결에 따른 단순한 정책전환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특성과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능력의 점증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 영토분쟁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우려한다. 지역의 패권 위협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이해는 매우 다층적이다.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The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제질서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전제 보다는 역할을 인정하고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에 위협과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 역시 미중 간 이해가 충돌할 경우 중국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양국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호혜적 협력을 중단하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정박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에서 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해군과 해외파견 공군 장비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해 ‘아시아 중시정책’의 상징적인 조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A2AD’ 전략으로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 막으려는 중국

중국 정부가 발행한 국방백서를 비롯한 다수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요인이 크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안보인식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며 중국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제3자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해 ‘반접근 및 지역거부’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 본토와 영해에 인접한 제1도련은 “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제도-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으로 연



(위) 미국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 Zumwalt’급 구축함이 건조되면 이중 3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 함대에 배속하겠다고 밝혔다. ‘ Zumwalt’급 구축함은 레이더와 소나(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함’으로 알려졌다.
(아래)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의 ‘B-21’ 폭격기. 중국이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최첨단 폭격기이다.

계된다. 보다 원거리에서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제2도련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한 선이 있고 중국은 여기에 접근하는 세력을 거부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적으로 미국과 전면적인 군사력 경쟁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소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점혈전을 추구한다. 이는 상대의 매우 약한 부분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해 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비대칭전략이다. 중국은 사이버전, 우주전, 대함미사일 전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에 접근하는 미군을 무력화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이 발전시키는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JOAC)’을 발전시켜 합동적 능력을 강화해 동시에 복수의 독립적인 작전을 전개하고자 한다. 미국은 다양한 전장에서 군사력을 운용해 중국이 의도하는 것처럼 주변부에 전력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중심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적 능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도 중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항공모함 전력만 비교해도 중국은 이제 단 한 척만을 취역했지만 미국은 10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2척은 본토 서부 지역인 샌디에고에 기항하며 언제든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일본에도 1척을 기항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즉응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국 군사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력 격차 확대로 중국의 ‘A2AD’ 무력화하려는 미국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 1천 892억 원)를 투입해 지난 4월에 미 공군 장관 데보라 리 제임스가 운용개념

을 발표했던 신형 전략폭격기 ‘B-21’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침입자라는 뜻의 ‘레이더(Raider)’로 불리는 ‘B-21’은 현재 운용하는 ‘B-2A’를 대체한다. 새로운 폭격기는 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 대규모의 무기탑재 능력, 핵무기의 폭격 능력 그리고 자동화 운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멀리 더 많은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고 또한 아군의 인명피해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에게는 위협적인 무기가 된다. 카터 장관은 뿐만 아니라 4월 8일 뉴욕 시내에서 가진 강연에서 스텔스 성능을 가진 ‘ Zumwalt’급 구축함(DDG-1000)이 건조되면 이중 3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 함대에 배속하겠다고 했다.

재균형 이행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신티 무기를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15일에 취역한 ‘ Zumwalt’급 구축함은 레이더와 소나(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함’으로 알려졌다. 소나로 추적해도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돌고래 소리)정도로 매우 정숙하다. 레이더에는 200톤급 어선처럼 보인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극렬히 반대했던 이유는 레이더 배치 때문인데 Zumwalt는 이와 유사한 X밴드 레이더(AN/SPY-3)를 탑재한다.

이런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이 준비하는 ‘A2AD’ 전략을 무력화할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할 것이다. 중국은 항모를 도입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양한 전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스텔스 성능을 가진 Zumwalt 구축함을 배치하면 서해 연안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B-21’ 폭격기가 중국 중심의 핵심지역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미국은 멀지않은 시기에 최첨단의 전략무기로 중국의 군사력을 수중과 공중에서 동시적으로 무력

화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우위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미중의 첨예한 전략적 충돌, 한반도 불안정성 관리 필요해

동북아시아는 G2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첨예한 전략적 충돌지역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을 대응하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무기를 개발한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경주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렇듯 불안한 평화를 지속할 뿐 언제든 오늘의 안정이 급격하게 불안정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두 번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위협 요인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 문제의 국제화는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한 동거 가운데 북한 문제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주변국이 개입된 갈등이 폭발할 경우 그 파급은 어디로, 어떻게 확산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첫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북한 문제를 비롯한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극대화 하고, 둘째,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위기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외교력과 거부적 억지력도 준비해야 한다. 🌐

박용환은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와 군사기획연구센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 부동산 시장 중국 자본 유입과 북 관료 참여로 확대·심화돼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북한의 부동산시장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자가 등장하여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단순매매’ 수준을 넘어섰다. 당국은 2014년을 전후로 주택사용권거래를 합법화했으며, 지금은 신규주택건설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경제에 영향을 주는 ‘개발’의 궤도에 진입했다.

사실 북한에서 살림집의 건설주체는 국가, 기관·기업소, 개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세 개 주체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비롯해 최근 ‘과학자거리’에서 ‘려명거리’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한 대형 건설프로젝트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국가는 실제로 이를 수행할 충분한 여력이 없다. 따라서 전문건설단위 외에도 공장·기업소와 같은 생산단위, 심지어 보위부·안전부와 같은 비생산단위 또는 특권기관에도 주택건설을 구역별로 할당·이양한다. 이른바 ‘기관주택’이다. 이때, 건설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기업소는 돈주를 유치하는 동시에 이 돈주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일부를 시장에 판매한다. 즉, 국가가 시행사여도 주택은 시장과 계획이 혼재된 메커니즘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 현재는 국가수준을 넘어 기관·기업소 외에도 개인 단위에서 아파트를 신축해 시장에 판매하는 ‘분양’수준에 이르렀다.

북한 부동산, 인프라미비로 입지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은 주택공급이 절대부족인 상황이므로 개발업자는 독점시장과 같이 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을 건설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매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판매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같이 인프라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건설주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한 공정이 된다. 예를 들어 평양도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주택을 지을 공지가 풍부하지만 굳이 건설이 고층건물로 뻗뻗한 중구역 아파트 틈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지와 인프라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심지어 최근 취학 아동인구의 감소로 쓸모없게 된 유치원, 탁아소, 학교 등이 생기자 용도변경구실을 내세워 이곳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자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구조와 입지만 좋으면 기초공사 뒤 1층만 닦아 놓아도 선금을 들고 집을 계약하겠다는 주민이 몰려든다. 입지가 금융기관의 용자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면상 아파트의 계약보다 완공 후 아파트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개발업자의 이윤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자가 밟아야 할 ‘철거’는 북한에서도 일반적인 과정이 되었다. 특히 구시가지는 주택만 낡았을 뿐 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어 개발업자의 철거대상 선호 1순위다. 따라서 철거를 둘러싼 보상 문제로 개발업자와 철거민 간에는 협상과 분쟁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특히 신축아파트가 건설되면 일반적으로 주변지가도 동반상승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가 생겨나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철거와 재건축을 둘러싼 투기세력과 전문 브로커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양시 대성구역 금수산 기념궁전과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 노후 아파트는 당초 5천 달러 수준에 거래되었지만 이곳에 30층짜리 현대식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방침이 공개된 뒤 집값은 2배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철거대상의 집을 시가보다 약간 비싸게 구입해 개발업자에게 이윤을 남기고 팔아넘기는 전문브로커도 등장했다. 향후 아파트가 건설되면 만 달러의 허름한 집이 5만에서 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동산 개발 열기

이러한 북한에서의 주택건설 붐은 평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만 해도 2010년까지 아파트라고는 중심지 역전동에 입지한

〈사진1〉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신의주시



2011.8.3 필자 촬영

〈사진 2〉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신의주시



2016.8.3 필자 촬영

7층 아파트가 전부였다<사진1 참조>. 대부분 단층 집(땅집·하모니커사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신의주시에 고층 호텔을 비롯한 고층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모습이 Google Earth 위성자료나 북·중 접경도시 단동을 통해 쉽게 관찰된다<사진2 참조>. 이러한 신축 아파트는 입지 및 구조가 좋고, 인터넷이만 잘 갖추어 있어도 3만에서 최고 6만 달러에 거래된다.

한편, 최근에는 10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아파트가 평양뿐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등장했다. 바로 청진시의 포항구역에 건설된 아파트로 지금 입주경쟁이 한창이다. 원래 이곳은 2-3년 전만 해도 단층집으로 즐비했다<사진3>. 그러나 청진 앞바다가 펼쳐져 절경을 이루는 항구도시의 단층집이 철거되고, 최근에는 개발영역을 아파트주변 청진제강소의 철거자리까지 확장하다보니 아파트가격은 순식간에 10만 달러로 뛰었고 향후 10만 달러는 쉽게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사진4>.

중국자본, 다양한 형태로 북한 부동산 개발에 유입돼

그런데 신의주시나 청진시를 포함하여 최근 건설

되는 아파트를 보면, 우선 담벼락 색깔이 울긋불긋 화려하며 푸른 지붕으로 덮여 있어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풍경을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자재로 건설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이런 신축 아파트는 조사결과, 중국인 투자가에 의해 건설된 것이 많다.

중국은 체제이행기에 이르기까지 직장 ‘단웨이(单位)’의 주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북한 또한 기관주택의 비중이 많다. 그 중에서도 최근 부동산업자가 중요해짐에 따라 특권기관의 부동산개발은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권력을 이용해 국가로부터 더 좋은 입지의 땅을 분배받고, 또 입지가 좋으면 돈주(선투자)는 자연스럽게 모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특권기관이 아파트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이유는 대외무역이 가능한 권한을 가진 무역회사단위들로, 힘 있는 만큼 실력 있는 중국대방(파트너)과의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강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인 투자가를 부동산건설에 유치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라고 해도 직접 아파트건설에 관여하는 합영의 수준은 아니다. 중국인 투자가가 북한의 합작회사에 철강과 시멘트 등 자재를 공급하면, 분양과 동시에 쌍방이 이윤을 나누어 가지거나 중국

<사진3> 청진시 포항구역 아파트(2011년 8월 이미지)



Google Earth에 의해 필자 작성

<사진4> 2015년 8월 이미지



측 파트너가 자금을 융통해 주면 차후에 북한 측이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인 대북업자도 최근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높은 광산분야보다는 이윤을 빨리 회수하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 그 중에는 향후를 전망하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토지사용권을 받고 북한 내에 투자하는 투자가도 있다. 이들의 투자 방식은 북한당국이 선호하는 임가공이나 에너지 분야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다. 이때 북한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필요 이상의 땅을 장기 임대받고 대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향후 중국과 같이 언젠가는 북한도 개방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그때 가서 업종을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오피스텔을 지어 이윤을 창출하자는 계산이다. 즉 미리 좋은 땅을 선점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동산투자는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장기화되어도 일단 중국으로 통하는 교역통로는 근본적으로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생존, 삶과 관련된 민생부문은 UN에서도 제재에서 제외시켰다. 게다가 민생의 개념 또한 모호하다. 예를 들어 무연탄 등 제재품목을 명확히 정했다고는 하지만 민생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통과가 가능하다. 심지어 시멘트와 철강은 제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북·중 간 오가는 트럭 수는 크게 줄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는 오히려 전성기를 회복할 정도로 왕래가 왕성하다. 게다가 제재 이후에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 중 하나로 대북사업가들은 시멘트와 강철을 꼽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북한 부동산 개발시장 신흥돈주와 관료참여 확대 전망

북한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장마당에서 장사가 잘 안된다고 불평한다. 불황이라는 것이다. 상품을

팔아도 종전에는 이윤이 최대 10배에서 심지어 30배 이상을 획득했다면, 최근에는 많아야 20% 미만이다. 바꿔 말하면 장마당은 이미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경쟁시장구조’로 전환했다. 동시에 북한 사람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한다고 한다. 여기서 틈새시장은 무역을 비롯해 석유·부동산·운송업·돈 장사 등 장마당과 달리 100% 외화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즉 북한의 시장은 같은 시장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 다르다. 내화로 거래되는 저부가치의 시장과 외화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의 시장으로 분류되는 이중구조에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한번 거래가 될 때 유통되는 화폐량은 막대하다.

그런데 전자가 진입장벽이 낮다면, 후자는 진입장벽이 높다. 여기서 장벽이 높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관료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고부가가치의 시장이라면 관료의 시장참여를 유인한다. 실제로 2014년 평양의 평천구역에서 아파트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준공검사도 마치기 전에 이미 주민이 입주했다는 사실은 아파트거래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특히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고위관료가 전면에 나서 국민에게 사과한 장면이 북한 중앙TV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영되었다는 사실은 관료도 부동산시장에 참여하여 일부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0년 이후 관료도 새로운 ‘돈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향후 관료의 부동산시장 참여는 북한 부동산시장의 확대여부를 결정짓는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임을 뒷받침한다. 

정은이는 일본 토호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 자문위원(북한, 북중경제 분석),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일본 ERINA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주민 인권과 장기적 남북관계 위한 선별적 인도적 지원 고려해야

김민서 세계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올해 8월 말 태풍 라이언룩이 북한 함경북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북한은 이번 수해가 '해방 이후 대재앙'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이 가속화한 탓에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도 다른 때보다 대북 수해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 수해지원은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체제경쟁 시절엔 북한이 먼저 우리 쪽에 수해 지원 의사를 타진하곤 했다. 1956년 7월 북한은 남한에 미곡 50톤, 모포 9만 6,000마, 의류 2만 점, 신발 5,000족을, 이후 1957년에는 북한 돈 2,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는 거절했다. 수해 지원이 자존심 싸움처럼 인식됐던 시절이었고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편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북한은 태풍 사라호가 강타한 1959년 9월에도 쌀 3만 석, 직물 1백만 마, 신발 10만 켤레, 시멘트 10만 포대, 목재 150만 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3년 태풍 설리가 남부 지방을 덮쳤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남한 동포를 돕겠다는 북한 제안을 거부했다.

냉온탕 오간 남북 수해지원 60년

반전이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정권에서다. 서울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1984년 9월 북한의 수해지원물품은 판문점과 인천항 등을 통해 남한에 도착했다. 쌀 5,000석, 천 50마,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등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수해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북한의 수해지원을 정부가 받아들인 이후 1984년 남북경제회담, 1985년 분단 이후 첫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고, 그해 10월 박철언 안기부장 특보와 장세동 안기부장은 밀사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했다.

이후 1995년 북한에 100년만의 대홍수가 닥쳤고 김영삼 정부의 식량 지원 제안을 거부했던 북한은 입장을 바꿔 남한과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식량을 받았다. 6·25 전쟁 발발 45주년 당일 강원도 동해항 30번 부두에서 쌀 1차 분 2,000톤을 실은 '씨아펙스호'가 북한으로 출항했다. 당시 씨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 삼선비너스호 사진촬영 사건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쌀 지원은 마무리됐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우선 순위에 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차관 형식으로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2000~2001년), 긴급구호지원 성격의 쌀 10만 톤 무상지원(2006년)이 이뤄졌다. 과거 정부와 차별화한 대북정책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쌀 5,000톤, 컵라면 3백만

개, 시멘트 4,000톤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정부는 이에 이미 북한의 신의주 주민들에게 전달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쌀과 시멘트를 회수해 공매했다. 이후 쌀과 시멘트는 정부의 대북 지원물품에서 제외됐으며 2011년 수해 당시 초코파이가 지원품목에 새롭게 등장했으나 북한은 거부했다. 2012년 우리가 제공 의사를 밝힌 밀가루 1만 톤, 라면 3백만 개, 의약품 등도 거부당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수해 지원… 냉랭한 분위기

유엔은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6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8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 모금에 나섰다.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이 지난달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 자금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의 수재민 60만 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지원 자금 가운데 식량과 영양 관련 지원에 42%인 1,190만 달러가, 보건 분야 600만 달러, 식수 위생 분야 530만 달러, 숙소와 주거 관련 480만 달러, 교육 20만 달러 등으로 배정됐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50만 달러(5억 7,000여 만 원)를 긴급 지원했고 세계식량기구(WFP)는 북한 주민 14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에 착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주택 3만여 채가 파괴되고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유엔이 파악한 수해 가구 규모는 함경북도 무산군이 5만여 가구, 회령시와 연사군은 1만~5만 가구, 온성·경원·경흥군은 1만 가구 이하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분위기는 다소 쌀렁한 편이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당국이 겨울이



1984년 9월, 북한이 지원한 수해물자를 실은 트럭이 판문점을 통해 남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2010년 9월, 민화협 등 민간이 마련해 수해지원 물자가 북으로 향하고 있다.
©민화협

오기 전에 수재민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붕 자재 등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석탄과 겨울 옷, 담요 등도 지원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재 필요한 지원품의 1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이 시원치 않은 이유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 매체의 북한 보도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의 냉랭한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의 홍수 피해 소식을 보도한 기사 제목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전 세계에 대항하면서 이제 홍수 재난에 대해 (국제사회에) 원조를 구하고 있다’였고 워싱턴 타임스는 “김정은 정권이 수억 달러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면서 홍수 피해 지원을 국제 구호기구들에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특히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하기 닷새 전 유엔 구호 기구에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들어 김정은 체제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의 홍수가 북한 매체에서는 주요 소식이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과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국가가 대북 지원을 더욱 꺼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북한 당국의 대응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물 피해가 ‘해방 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평양주재 아시아 국가 외교관을 초청해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큰물(홍수) 피해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조선중앙TV는 수해 현장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 영상은 태풍이 쓸고 지난 간 뒤 아수라장이 된 마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철길과 도로가 유실되고 집들은 무너져 내렸으며 주민들은 맨손으로 복구 작업에 열중한 모습이었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 이후 추진하던 대규모 건설 사업인 200일 전투에 투입됐던 각종 건설 기자재와 장비, 인력을 수해복구 현장에 우선 배치했다. 북한 당국이 수해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노동신문은 평양 려명거리, 삼지연지구, 고산과수종합농장, 세포지구 축산기지, 황해남도 물길,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 원산지구건설에 동원된 군인과 돌격대원들이 모두 피해현장으로 급파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체제의 치적 과시용으로 평가되는 각종 토목·건설 사



지난 9월 7일 북한 회령시에서 홍수로 완파된 집 앞에서 한 여성이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엔 인도지원기구 공동조사단

업에 투입됐던 역량을 수해복구로 돌렸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하지만 북한 매체의 수해 복구 초점은 여전히 주민들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선전에 맞춰져 있다. 최악의 수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세우는 등 우상화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단적인 예다. 수해가 나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부터 챙길 것을 요구하는 북한 방송 내용을 봐도 그렇다. 조선중앙TV는 “대재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보위하고...”라거나 “(수령님) 초상화를 정중히 내려모셔 가슴에 안고 대피지역으로 급히 달려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주민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수해 복구가 완료되지도 않은 마당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수해지역 청소년들을 위로한다며 강원도 동해안 명승지 송도원에 이들을 초대해 야영활동에 들어갔다는 노동신문 보도는 다소 뜬금없기까지 하다.

인도주의적 지원만큼은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준희 통

일부 대변인이 9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외부에서 (수해) 지원을 하건 내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던 간에 결국은 그 독재자(김정은)한테 그 공이 다 돌아가고”라고 밝힌 대목은 현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다. 정 대변인의 이 발언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천박한 인식”이라는 야당 의원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북한 주민과 당국을 분리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였으나 이번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주민과 당국을 나눠 대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대북 수해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정부가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의견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장기적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차원에서 민간단체 지원은 옥석을 구분해 솜통을 띄워주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서는 영국 브리스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세계일보 외교안보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로 재직 중이다.

재외동포사회와 힘을 모아 민화협 가치와 통일의지 국제사회에 알려야

민화협 시카고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조찬조

지난 10월 8일, 미국 일리노이 에반스톤 노스웨스턴 대학에 위치한 Pick Staiger Concert Hall.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콘체르토 D장조'가 홀에 울려 퍼지며 1,000여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이번 행사는 민화협 시카고 협의회가 오랜 시간을 준비해 개최한 "2016 한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Symphony in Chicago"였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대부분이었던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 제고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민화협 시카고 협의회 조찬조 대표상임의장.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조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장

민화협 Symphony in Chicago 가족과 함께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줘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잊혀 지더군요. 기립박수가 연이어 나오고, 강주미 씨는 앵콜을 세 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미국 중서부 지역 200여 한인 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도 의미 있었지만,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호평을 얻었어요. 많은 미국 주류인사들이 참여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확산도 이끌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민화협 본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시카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미주 동포 사회 언론 뿐 아니라 시카고 타임즈, MC TV, WIN TV 등 미국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며 소개했다. 조찬조 의장은 민화협 시카고음악회 준비위원(강위중, 강효훈, 김준용, 박계호, 박영선, 박영근, Andrew Lee, 윤예서, 이진, 이창환, 장동규, 허정자, 홍승의)들과 함께 이번 행사의 성공을 위해 가장 땀 흘린 주역이다.

1945년 생인 조 의장은 1970년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을 다니던 중 1976년 미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그 후 미국 Northwestern 치의학 보철학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보험회사인 'Dental one Insurance Inc.'의 이사와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I-Lite LLC.'라는 컨설팅 기업의 고문(Senior Adviser)을 맡고 있기도 한 조 의장은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이다. 일리노이 Cook county Asian committee 의장, 일리노이 한인 정치연합회 회장, 시카고 leadership Council 회장, 시카고 상공회의소 회장, 시카고 지역 아시안 상공연합회 수석 부회장 등 그가 역임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직책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제가 민화협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벌써 5년입니다. 하지만 미주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견 차이 등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또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 미주 동포사회 역시 얼어붙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민화협 활동의 가치와 추구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어떠한 대형 이벤트를 통해 동포사회의 인식을 바꿔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조 의장은 위스콘신 주립음대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원 66명, 지휘자 김준용)를 초청하고, 시카고 장로·권사 연합 합창단 100명을 초청·구성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Clara-Jumi Kang)를 초대했다. 무엇이든 어설프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조 의장의 평소 철학처럼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무대를 '민화협'의 이름으로 치러 내자는 각오였다. 준비 기간만 10개월이 소요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콘서트 홀 전체 1,094석이 모두 채워졌고, 관객들의 가슴 속에 '민화협'의 활동 가치와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다. 미국 주류 인사들을 포함한 미주 동포들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어우러지는 천상의 멜로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했다.

“소통을 통한 화해와 협력이 민화협의 가치 아닌가요. 소통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주 사회 역시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



10월 8일 미국 일리노이 에반스톤 노스웨스턴 대학 Pick Staiger Concert Hall에서 열린 민화협 시카고 협의회 주최 “2016 한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Symphony in Chicago”의 공연 모습

간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때문에 가족 단위로 공연에 와달라는 당부를 인터뷰를 통해 계속 강조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자연스레 대화하고 또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너무 좋았다고 평가해 주실 때 가장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화협의 가치, 꾸준히 멈춤 없이 알려나가야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그의 인연으로 민화협 해외협의회에 함께 하게 된 조찬조 의장은 시카고 지역 동포사회에서 민족화해와 협력, 소통과 공감이라는 민화협의 활동 가치를 알리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타 단체와의 협력 문제, 재정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공연 역시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주미 씨 등이 재능 기부에 가까운 조건으로 협조해 주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 의장이 노력과 역할이 적지 않았다.

“물방울이 떨어져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뤄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민화협 활동 역시 비록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비록 경색국면이라 해서 민화협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해외협의회는 물론 서울 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큰 행사를 치렀지만, 이는 민화협 시카고 협의회역의 역량을 크게 알린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화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크건 작건 끊임없이 평화와 통일, 소통과 공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민화협의 가치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통일,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선불리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본의 아닌 오해와 비난도 많이 받았던 경험도 있다. 무책임한 색깔론이나 단정은 화합과 소통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민화협 활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미주 동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조 의장은 그들과 함께 민화협의 가치를 알려나가며, 인식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재외 동포사회가 하나의 힘으로 모일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조 의장은 매년 개최되는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칫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 정해진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공백을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조찬조 의장은 민화협 활동과 가치가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숙명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인상적인 연주를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 씨(가운데)와 함께 한 조찬조 의장(오른쪽). 강주미 씨 왼쪽으로 민화협 시카고 협의회 차세대 홍보위원인 윤에서 씨가 함께 했다.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민화협 운동 전개하고파

“매일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북문제, 통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단지 언론이나 주위의 말들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자칫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전체회의의 다양한 특강이나 현장 방문, 회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현실이나,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가 해야 할 역할 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려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에 차세대들과 함께 오래 많이 노력했다는 조 의장.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주 사회의 차세대들도 시간이 갈수록 조국의 분단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차세대들에게 저 멀리 태평양 너머 한반도의 분단은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

다. 장차 미주 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할 차세대들이 조국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조 의장은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과 함께 통일을 이야기하고 민화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민족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자 살 길이 바로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민화협의 가치에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800만 재외동포가 한국 국민들과 힘을 모아 통일 한반도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아울러 동포사회의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 간 화합과 소통에도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시카고 협의회는 민화협 본부와 협력하며 동포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017년 다시 만납시다!”

전체 미주 동포사회의 민화협 커뮤니티 활성화와 각 지역 단체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조찬조 의장. 미주 동포 사회의 단단한 구심점으로 시카고 협의회가 우뚝 서길 바라본다.

기획_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어떻게 볼까 ①

남이 보는 북한사람, 남북관계의 악화로 부정적 인식 확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한동안 냉전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다시금 냉전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현재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지형은 만만치 않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서로 대치하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거기에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까지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최근 행보는 전략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데 있다.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개성공단마저 지난 2월 전격 폐쇄되면서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의 채널은 모두 다 막혀버렸다.

물론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남측의 강경 대응은 일견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난과 정권 유지를 위해 북은 집요하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왔고, 이러한 북의 시도를 지난 십여 년간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북의 핵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던 남한 정부는 허둥거리기 수밖에 없었고, 긴박한 상황에서 남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

나가 바로 강경한 대북제재와 남북대치였던 것이다. 즉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모든 자금줄을 막아 북한 체제가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에 의문이 생기면서 과연 북한 체제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기도 한다.

경제제재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북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인권 탄압을 문제시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촉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의 문제는 잠시 차치하고, 남북관계의 악화가 야기한 남한 주민의 대북 인식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신냉전이 가져온 남한 주민의 대북 인식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2015년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¹ 협력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남한주민은 45.3%에서 35.2%로 약 10% 정도 급락하였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6.5%로 2014년 보다 약 3% 상승하였다. 또한 북한의 변화에 대한 비관적 인식 비율 또한 55.7%에서 61.7%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과의 대결국면이 강화되면 될수록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대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를 주

목해볼 수 있는데,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대는 20대(19.7%), 30대(16.8%), 60대(16.7%) 순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보다도 20대와 30대가 더 높은 수준의 적대적 대북인식을 견지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력이 북한을 적대시 한다는 것은 향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SNS 빅데이터를 통해 통일의식을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시기에 전반적으로 통일인식이 하향세를 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특히 남북 간 교류를 상징하는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선언, 통일대박 등을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평화, 필요, 노력, 중요 등의 다소 우호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무기, 대치, 천안함, 휴전선과 같이 분단과 대결을 상징하는 단어가 언급된 데이터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협, 문제, 족박, 포기 등의 적대적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셜 데이터가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남북관계가 악화된 최근 몇 년간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 또한 상당 부분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남한 주민의 인식 변화는 그리 놀랄 만한 것도 아니다. 주지하듯 미디어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근 몇 년간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와 TV, 신문, 소셜 웹사이트 등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이면서도 선정적인 방식으로 쏟아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¹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² 송태민 (2016) 『2016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인식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북한 출신자에게까지 투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 악화, 서로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 확대시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사회적 위협이 증가했을 때 북한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감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2007년부터 2015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황정미의 연구는 최근 수년간 증가된 사회적 위협이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³ 여기서의 사회적 위협은 남한사회내의 위협 가령 경제적 불평등이나 여타 사회 환경의 위협과 함께 남북관계의 악화, 안보 불안 증가, 북한의 위협 등이 강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가 각박해지면 질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시선이 강화되고, 특히 남한 주민의 북한출신자에 대한 거리감은 그들의 모국인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북한출신자를 구별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지향점이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악화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의 인식과 감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은 그 세계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대적 사고방식과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증오, 환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체계의 흔적을

남겼고, 다시금 도래한 ‘신냉전’이라는 현 상황은 조금은 흐릿해져버린 냉전적 인식과 감정을 뚜렷하게 부상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의미화 되고,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보다는 제재와 대치가 더 적절한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로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화’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대로 ‘악마화’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다시금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로를 증오하는 남과 북이 평화적인 방법과 결과로써의 통일을 꿈꾸기란 요원하다. 대부분의 남한 주민에게 악마와 같은 존재로 각인되어 버린 북한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 때문에 현재의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측면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각의 주민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의 맥락에서 다시금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 이해 필요

만약 남과 북이 앞으로 각각의 국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최근의 부정적이고 적대적 인식의 강화는 양국이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남과 북이 ‘분단체제’로 서로 의존하며, 한편으로는 공통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남한주민의 대북 인식의 변화는 결정적인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의 자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미디어는 ‘종북 프레임’에 충실하게 복무하며, 북한, 그리고 북한출신자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을 전

³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제 23권 2호



도리산 전망대에서 한 가족이 북을 바라보고 있다. ©김성현

지해왔다. 남한 주민의 대북인식의 제고를 위해 한국의 미디어는 좀 더 균형 잡힌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북을 희화화 하거나 악마화 하려는 유혹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특수성, 다시 말해 공통의 미래를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미디어 보도에도 충실하게 녹여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해가 요구된다. 단순히 감정적 수준에서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북한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평화롭게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과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 같다. 남한 주민의 마음속에 각인된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인식은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지난 시기에 남한 주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

로 북한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사실을 기억한다. 결국 교류와 협력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작동할 때,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냉전적 사고와 감각에 균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함에 분명하다. 분단의 기간만큼, 서로를 적대시했던 시간만큼, 아니 어쩌면 그 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분단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과정이 어떠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직 뚜렷한 답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지난한 여정의 시작이 파탄 난 남북관계의 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김성경은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교수,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교수,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_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어떻게 볼까 ②

북이 보는 남한사람, 친근함과 적대감 공존

강동원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는 현재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최고수위라 평가받을 만큼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탈북자들의 증가와 해외 주재 고위급 관리들의 연이은 망명 등 북한 내부적 균열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북한주민의 탈북유형도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문제에 기반 한 생계형 탈북형에서 이주형 탈북이 늘어나는 가 하면, 먼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탈북민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면 북한 사회 변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의 국장급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진술을 관계기관 면담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언급은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의 민심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주민을 향해 직접적으로 탈북을 권유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남한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을 향한 적대적 감정과 선망의 공존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결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남한 및 남한 주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한류 문화의 북한 내 유입으로 남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는다. 남북한은 한민족이라 말하지만 분단 70여년의 세월로 많은 차이가 생겼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 북한 사람’으로 분명히 경계를 나누어야 하는 분단국가의 ‘다른 사람’들이다.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각기 걸어난 그 길이 옳다 외치며 적으로 살던 남북한이 지금 통일을 말하고 있다.

통일은 남북한이 제도와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분단 70년의 시간은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분단의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에게 북한 사람은 정치와 이념으로 대립된 ‘만나서는 안 될’, ‘어딘가 다른’, ‘적개심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각인되어 있다. 북한 당국 역시 철저한 사상학습과 통제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남조선은 거지, 노숙자가 넘쳐나는 굶주린 나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입한다. 북한당국의 사상학습교양을 받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사람은 어떻게 인식되는지 직접 들어보자.¹ 제3국에 친지방문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나온 북한주민 100명에게 남한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84명,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12명,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명,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명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주민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무려 84명이나 되었다. 남한 사람을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말하는 북한주민들의 생각이 사뭇 궁금해진다. 눈만 뜨면 사상교육을 통해 ‘남조선 괴뢰’라 교육 받았을 그들에게 남한사람이 그토록 친근하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알게 되면 바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사람에 대해 친근함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조선 사람이고, 한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저 같은 동포라는 마음에서 남한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한편 한민족이라는 막연한 감정보다는 생활에서 실제 남한 사람을 접하면서 친근함이 생긴 경우도 있다.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몇 개월씩 중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한다. 조선말이 통하는 한식당에서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 식당을 찾는 한국 손님들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한 북한주민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식당에 올 때마다 항상 먼저 인사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주민은 남한 사람과 직접 말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북중접경지역 도시에서 택시를 탈 때 먼저 양보하는 남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도 한다. 아무리 ‘수수한 옷차림’이라도 남한 사람인 줄을 단번에 알게 된다고 했다. 북한에 살면서 한평

¹ 이 부분은 제3국에서 북한주민 100명을 직접 면접 조사한 내용을 엮은 강동원 외,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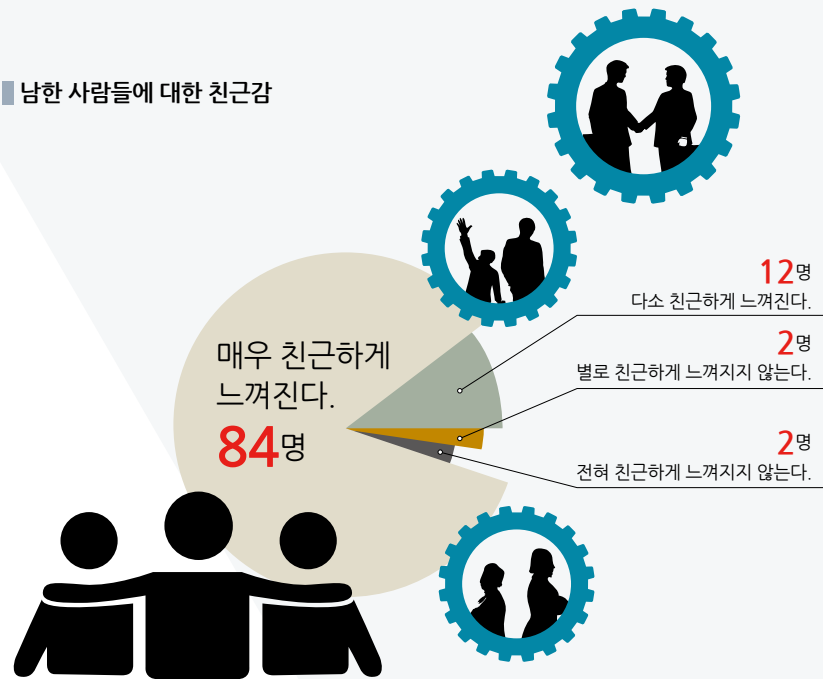
생을 북한 당국에 의해 속고 살았는데 막상 접해보니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한다.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몰랐고 사상교육으로 인해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 와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경험한 남한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해외근무자의 탈북 사례를 보면, 출신성분이 좋은 엘리트 계층이더라도 해외에서 직접 경험한 외부세계는 북한사회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주민도 알면 바뀔 것이다’라는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말처럼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과 자유에 대한 요구는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주입된 정보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남한 미디어가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출구가 되는 것이다.

남북 간 문화접점 통해 일상 속 통일논의 이어져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

■ 남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



출처: 강동완 외,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인민을 만나다>(부산: 너나드리, 2015).



북한 판문각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북한의 사회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남북한이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적 기반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문화접점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줄여 나가야 한다. 남북한 사람간의 문화접점을 통해 인식적 격차를 줄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통일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진 거대담론으로써 통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직접 인지할 수 있는 통일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폐해가 우리의 실생활에 스며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착화된 분단의 일상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통

일을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통일의지와 실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 경제적 차원의 통일이익이나 제도만의 통일이 아닌 “사람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와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넓혀가자. 쪼개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분단의 장벽은 쉬이 허물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강동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부산하나센터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통일과 폐친하다>, <한류, 통일의 바람> 등이 있다.



통일공감포럼 제3차 통일공감대화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인권 개선 위한 대화·압박 병행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도 진행해야

Key 1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 “국제제재 속 경제사정 큰 변화 없지만 인권 상황 여전히 열악해”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하 윤여상)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UN이 2014년 만든 보고서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밝히고 있고, 우리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950년대 북한과 2000년대 북한, 그리고 지금의 북한은 다른 나라로 보일 만큼 변화가 있다. 저희는 1990년대 발생한 사건과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항목별로 분류해 표를 만들어 전후 상황을 비교하는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식량권, 교육권, 건강 등과 같은 ‘사회권’ 부분들은 2000년대 이후 월등히 좋아졌다. 그러나 자유권, 생명권, 종교, 언론·출판 등의 권리는 90년대보다 2000년대 이후 더 나빠졌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신부(이하 박창일) 1995년부터 대북인도지원사업을 해왔고, 인도지원이 북한 인

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유일영도체제 10대 원칙이 있는 현 북한 상황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권과 생명권, 사회권 등 모든 권리들이 열악한 것은 확실하다. 또한 북한 경제는 우리와 다르다. 군수경제와 민간(민생)경제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때문에 현재 UN 제재 중이지만, 민생과 인도지원 쪽은 열려있는 상태다. 지난 6월과 8월 단동을 가보니 압록강으로 넘어가는 물자들이 여전히 많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북한 무역상과 무역을 하는 중국 업자는 현재 국제제재 중이지만 무역상이 하는 일은 제재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근래 평양을 방문했던 교포들이나 두만강 쪽으로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재와 관계없이 여전히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과 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열악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Key 2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쟁점과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비정치성의 원칙 추구해야”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이하 최대석) 그

민화협의 남남대화 특별기구 ‘통일공감포럼’의 제3차 통일공감대화가 9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3차 통일공감대화는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대담에는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신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인 만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편,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족화해〉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쟁점과 접근법,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북한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번 토론을 요약·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동안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너무 등한시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통과됐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정부의 노력도 없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이 완벽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나가는가가 중요하다. ‘사회권, 생존권’의 차원을 넘어 앞으로 북한인권법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즉 인권법의 시행과 문제를 대북 정책과 어떻게 연관 지어야 할 것인지는 어려운 쟁점이다. 큰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질적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역시 보편성이라고 본다. 인권 문제의 보편성과 비정치성 아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대북 인권정책의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인권법에서 나타난 정신이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 일관성과 실질적 개선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원칙이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이하 전현준) 당연히 북한 인권은 신장되어야 한다. 인권이 신장되고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갈 것인가’이다. 보수진영은 “제재를 강하게 해야 변화되고 인권도 신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진영은 “제제도 하지만 지원과 대화를 병행해야만 인권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한다. 또 보수진영은 “자유권, 정치권, 즉 정치적 자유나 집회결사·언론·출판·종교의 자유를 신장시켜야만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자유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진보진영은 “일단 생존권, 경제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 옳지만, 저는 역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권, 생존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취약계층이 많고, 대부분 사람들은 근근이 살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는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사회주의 또는 반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수령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창일 북한인권재단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잘못하면 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데 일방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북에서 오신 분들을 전부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겨, 가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고 통일이 되면 그것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 우리가 인권 기록을 해둠으로써 북한 당국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인권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인권을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접촉’이다. 접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에서 온 수많은 탈북민 중에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이다. 인도지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도 북한과 더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윤여상 보통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 할 때 두 가지를 말한다. ‘빵만 먹고 살 수 있느냐’ 혹은 ‘빵 없이 살 수 있느냐’다. 서구 유럽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살 수 있느냐’를 더 강조하고,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었을 당시에는) ‘빵도 없는데 그 외의 것을 왜 논하느냐’고 말했다. 이것을 학자들은 ‘자유권이 우선인가 사회권이 우선인가’로 표

현한다. 전 이렇게 이야기한다. 북쪽의 상황을 보면 맞아 죽는 사람도, 고문 받아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맞아 죽을 만큼 가보고, 한쪽은 굶어 죽을 만큼의 상황까지 가 보고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를 비교해보자는 말을 학자들이 정책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사자들에게는 논의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은 이제 ‘빵이 없어 죽는’ 상황은 아니다. ‘빵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수준이 되었기에 논의를 좀 더 상향해야 한다.

Key 3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인권 개선으로 이어질까?”

전현준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할 것인지,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층이나 주민들이 주동적으로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다 필요한 요인이지만 외부 요인이 너무 많이 작용하면 북한 정권은 움츠러든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탄압을 가하게 된다. 내부에서 민주주의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성되고 확장될 수 있는 ‘땀아’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나빠질 경우에는 탄압이 더 심해진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탄압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고 형성된다면 북한 인권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현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윤여상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는 결국 상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도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고 남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 없다. ‘영어 선생님은 영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을 보고 왜 영어를 안 가르치냐 하고, 수학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에게 수학을 왜 안 가르치냐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수학 선생은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영어 선생이 수학을 안 가르친다고 탓할 게 없다.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가 갖는 장점이고, 하나만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대석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수록 북한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 시점으로는 이렇게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싶다. 미국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그것이 만료된 이후 재승인 되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

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UN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결의안이나 보고서도 나오고 있음에도, UN을 탈퇴하거나 EU국가들과 국교를 끊지는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인권 문제가 병행 가능한가를 논하기 전에, 일단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문제는 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남북관계를 먼저 걱정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박창일 최 교수님 말씀도 동의한다. 밀고 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기도 싫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나쁘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정책 속에서 사랑과 우정, 신뢰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차츰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공개적으로 말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민간단체들이나 당국 간 비공식 사안이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현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도지원과 북한인권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Key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인도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변화에 일정한 영향 줄 수 있어”

최대석 제가 발제문에 ‘전략적·실용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실현 가능성이 크고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고, 인권 개선 효과가 큰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인권재단도 생기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지금 북핵문제처럼 너무 큰 문제부터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슈의 서열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혹은 미래에 이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은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도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나가면 결국 풀릴 것이라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십자군 정신을 가지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돌격하자’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저는 학교에서 ‘북한 정치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친다. 탈북학생도 수업을 듣는데, 두만강 유역의 수재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본인이 그쪽 고향 출신인데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참혹한 상황인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곧 그 지역은 날씨가 추워질 텐데 아이들 방한복 같은 것 정도도 못해준다면, 북한인권법을 만든 취지를 한 번 의심해 봐야한다.

윤여상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대가성이 없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하고 결혼식 부조는 다르다. 일본 같은 선진국도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그 지역에 긴급히 물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국제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조하듯이 하는 것이다. 이것과 인도적 지원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즉 긴급하게 지원해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가, 대가성 없이 상대방이 요구하였는가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지원에 대해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북한 스스로 그 지역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의례적으로 도와주는 ‘부조의 성격’의 논의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인도적 지원’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박창일 인도지원 단체들이 만든 ‘인도적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이 있다. 그 원칙 중 하나가 대북인도지원 원칙인데, 첫 번째가 ‘인도적 명령 우선’이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기, 대상,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긴급 구호 물품이 되든, 장기적인 개발·협력 사업이 되든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바라는 것은 북한의 인권을 위해 같이 일하면서 한 쪽에서는 자유권에 더 중심을 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권에 중심을 둔다 해도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나는 자유권이 중요하니 생존권을 중시하는 너와 관계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진정한 인도주의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Key 5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우리 사회 보편적 감수성 높이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첫걸음”

전현준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다. 그래서 남북관계

에서 인도주의 지원은 어느 정도 정치성과 목적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정치적 측면에서도 수해 지원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지원을 하면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지원에 분명히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적개심이 줄어들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민군들이 다 빼앗아가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북한 주민과 인민군 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간 합법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서독처럼 방송을 개방하는 등의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신뢰가 쌓인다면, 북한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깨워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럼에도 저는 ‘안보’란 결국 ‘소극적인 평화’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평화’는 역시 안보를 튼튼히 한 가운데 지평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본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지향적인 대북 정책을 계속 펴 나가야 한다.

윤여상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현상을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통일은 ‘바꾼다’는 의미다. 그런데 인권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일종의 보수적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개념과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인권’ 그 자체의 독립성과 보편성, 일관성을 갖는 정책적 입장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지 않고선 사회의 차이나 대립각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석 그동안 북한학 교수를 20여 년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일도 해보고 대북지원 사업 쪽

에서 일해보기도 했다. 그 당시 대북 인권운동 단체와 대북 지원 단체 간에 갈등도 있었겠지만,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발견했다. 법륜 스님이 하는 ‘좋은벗들’이다. 법륜 스님은 ‘좋은벗들’을 통해 탈북민을 돕는, 특히 해외 탈북민 조사 등을 많이 했고, 우리 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통해 인도적 지원도 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같은 단체가 다른 모자를 쓰고’ 북한 인권 운동에도 관여하고, 대북 지원도 한 것이다.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사실 대북 지원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북한 인권 운동을 많이 하지도 못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 후 보수단체에게만 지원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때부터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점을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박창일 북한인권재단을 책임질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 사회공동협약 등의 ‘공통분모’도, 윤리 강령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단체들 간 예산을 가지고 분쟁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단체가 북한인권재단을 잘 모니터링 하는 것도 갈등 해소의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탈북민들은 두만강 유역 출신이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곧 영하로 온도가 떨어진다. 지원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까 인도주의 원칙은 ‘당사자가 요청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견해는 다르다. 그 원칙은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했던 인도 지원을 보면 북한의 요청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치, 인종, 종교, 문화, 심지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원을 실행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원칙이다. 🌐

스포츠와 배지로 보는 북한의 속마음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한영식은 스포츠 경기 성적순으로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올 여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의 가장 상징적 사진은 아마도 기계체조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은주와 북한의 홍은정 선수가 함께 셀카를 찍는 사진이었을 것이다. 경색 일변도의 정세 속에서 스포츠 분야에서는 다정한 남북의 모습을 보여줬다. 로이터 통신기자가 찍은 사진은 각종 포털과 인터넷 SNS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로 전해졌다. 북한 사람들도 이 사진을 보았을까? 이은주-홍은정 통일 자매의 사진은 북한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지도 않아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로이터 등 외국 통신사와는 전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올림픽과 축구 A매치 등 국가대표가 외국 선수들과 승부를 겨뤄 승리하는 순간을 기록한 영상은 구성원들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 역시 체제 선전



과 권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 보상을 한다. 김정은이 직접 공항에 나가 우승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시가 퍼레이드를 펼쳐 주기도 한다. 금메달 2개에 그친 리우 선수단의 귀국 모습은 노동신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과 대조된다.

충성과 소속감의 상징 '배지'



김일성·김정일 배지는 마치 결혼반지처럼 충성과 소속감을 상징한다. 북한에서 배지는 휘장이라고 불린다. 김일성·김정일 휘장(배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북한식 문화일까 아니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1967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유일사상 10대원칙'은 김일성의 우상화를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 휘장은 이 때부터 북한 사회에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휘장은 중국의 휘장 문화와 유사하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마오쩌둥의 휘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관광지의 기념품샵에 가면 마오쩌둥의 젊은 시절, 나이든 이후의 모습 등 다양한 시절의 얼굴이 들어간 휘장을 볼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상장(xiangzhang, 像章)이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들의 상이 들어 있는 휘장'이다. 중국 외교관 리자오싱은 2014년 펆낸 자서전에서 중국이 마오쩌둥 우상화를 위해 노력하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1967년 10월 케냐 정부가 중국 대사 관측이 마오쩌둥 저작과 어록 그리고 상장(휘장)을 케냐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1969년에는 마오쩌둥 저작을 케냐 영토 안에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는 설명이다.

북한 휘장이 1967년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최고지도자의 휘장은 이미 중국에서 보편화되고 '수출'까지 한 문화를 북한이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김일성의 휘장을 달고 다닌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공식 후계자가 된 이래 휘장을 달고 나타났다. 2012년 4월 7일부터는 쌍상 배지(김일성+김정일 얼굴)를 달고 나타났다. 2015년 여름부터 김정은은 간헐적으로 쌍상 배지를 달지 않고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배지를 달지 않는 날이 훨씬 많다. 선대로부터 독립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중국의 지도자들조차 마오쩌둥 배지를 거의 달지 않는 국제 정치의 표준을 따르기 위함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변영욱은 현재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에 재직 중이며, 청와대 출입 및 일반 사진 취재를 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1호 사진의 변화'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남북한 최고통치자의 보도사진 프레임 비교'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김정일.jpg-이미지의 독점", "위대한 장군 모습을 만드는 방법" (일본 소시사 출판), '김정은.jpg-북한 이미지 정치 엿보기' 등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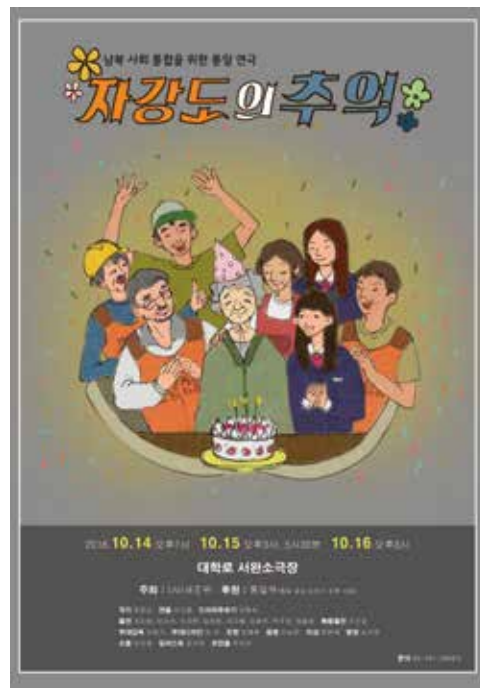
문현에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함모임 간사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연극은 많았다. 하지만 ‘자강도의 추억’ 만큼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먹먹하게 만든 연극이 있었을까? 가족을 북에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통일 연극, ‘자강도의 추억’을 소개한다.

지난 10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대학로 소극장에서 통일 연극 ‘자강도의 추억’이 진행됐다. 450여 명의 관객을 감동시킨 이번 연극은 통일부의 ‘통일

공감더하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함모임 남북언어문화연구소가 탐홀려 만든 어넌 작품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 정권의 핵위협과 잦은 도발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이나 방향성 또한 관점이 불일치하고 부정적이다. 이런 시기에 진정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분단되어 있던 남북한이 새로운 하나의 조국으로 탄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통일연극 ‘자강도의 추억’은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타적인 시선과 차별이 아닌 ‘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건설현장 인부인 ‘혁수’와 그를 못

마땅해 하는 작업반장 ‘종수’, 가사도우미 ‘설화’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순이 할머니. 파들림으로 인하여 친구를 믿지 못하는 ‘진희’에게 끝까지 다가가 친구가 된 ‘은별’을 통하여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주로 하고 있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가사도우미, 학생의 입장을 재조명하여 보여주었다.

극의 초반에는 남북주민의 갈등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서로 대화가 없으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느리지만 천천히 서로를 지켜보며 슬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응원할 수 있게 된다. ‘자강도의 추억’이 관객들로 하여금 더 몰입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북한이탈주민 ‘혁수’, ‘설화’, ‘진희’ 역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맡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연기할 때 자신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관객들에게 전달되었고, 관객들은 함께 웃고 울 수 있었다.

공연 당일, 많은 관객들이 배고픔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건설인부들이 술을 한잔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까메오로 이순실(북한이탈주민 방송인)씨가 치킨을 배달한다. 이때 배달하는 치킨은 매번 극이 시작하기 전 후원사에서 협찬한 ‘진짜 치킨’이다. 그리고 연극 중 소주병을 따는 소리가 너무 리얼해 관객들이 저거 진짜 술 아니냐며 궁금해 했다. 이제 밝히지만 배우들은 후원사에서 협찬해준 ‘진짜 소주’를 마시며 취중연기(!)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무대에 오르기 전, 박종수(50세, 건설인부)역을 맡은 이규석 성우(KBS)는 연극에 처음 도전하는 김혁수(52세, 건설인부)역의 최 씨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안타까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 대안으로 극중 인부들끼리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실제 소주를 마시며 최 씨의 긴장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만약 이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무대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최 씨의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다.

재미와 감동이 더했던 소통과 공감의 시간

연극은 6월에 진행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을 위한 기획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언어교육 종료 후, 간단한 연극을 통해 교육생들의 약해진 사투리 억양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다함께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규석 성우의 의견에 유환숙 작가(KBS)가 “학예회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



재”라며 제대로 준비해 연극을 선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단 4개월 만에 ‘자강도의 추억’이 실체화되었다. 공연일은 새조위의 28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5일로 결정되었다.

이어 정호순 작가(KBS)가 한 달 반 만에 작품을 만들었고, 이를 유환숙 작가가 북한 사투리로 대사를 교정하였다. 그리고 8월 29일, 첫 연극 리딩이 시작되었다. 남한배우들은 현재 활동 중인 성우들로 이미 전문가들이었지만 북한이탈주민 배우들은 연극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터라 연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배우들은 휴일 없이 매일 밤 7시에서 11시까지 배역에 몰입하여 지냈다. 이런 강행군이었기에 배우들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가 힘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난 지금도 배우들은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남한과 북한. 극 중 은별의 대사처럼 체제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배우들은 몸소 체험하고 관객 앞에 섰다. 그랬기에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마음을 울리며 재미도 2배, 감동도 2배인 연극으로 선보일 수 있었다. ‘자강도의 추억’의 결말처럼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

문현에는 수원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부터 사단법인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함모임(새조위)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계올림픽과 남북 ②

이상현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



- 01 핸드볼 도안 모스크바 올림픽 기념우표 / 북측 / 1979.9.5.
- 02 엘에이 올림픽 기념 항공우편용 우표, 일반우편용 우표 70원에 비해 440원의 고액 우표이다. / 남측 / 1984.7.28.
- 03 엘에이 올림픽 기념 소형시트 / 북측 / 1983.11.30.
- 04 서울올림픽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호돌이 / 남측 / 1985.3.20.

1980~90년대 남과 북의 올림픽 기념우표를 보면, 냉전의 여파가 인류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 속에서 남과 북의 치열했던 대립과 경쟁도 엿볼 수 있다.

먼저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미국 엘에이 올림픽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불참한 반쪽짜리 올림픽 대회였다. 이는 남과 북의 우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남측은 모스크바 올림픽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북측은 2차에 걸쳐서 15종의 기념우표와 대회가 끝난 후 대회 금메달리스트 우표 9종까지 총 24종의 우표를 발행했다.

공산진영이 참가하지 않은 미국 엘에이 올림픽이었지만, 흥미롭게도 북측은 1983년 11월에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북측의 우표발행 특성상 해외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우표의 경우 행사가 개최되기 1년 정도 전부터 발행하곤 하는데, 1984년에 들어서야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88년 서울올림픽은 동구진영과 서구진영 모두가 참여한 화합의 장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북측의 불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수 기준 4위로 역대 최대의 성적을 거두었고, 고도성장기의 성공을 상징하는 대회이기도 했다. 북측은 남측의 올림픽 유치에 맞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때는 남과 북이 모두 금메달리스트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남측은 일장기를 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한을 풀어 준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를, 북측은 금메달리스트 4명 모두를 도안으로 해서 기념우표를 발행한 것이다.

제26회 대회인 미국 아틀란타 대회 때는 북에서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계순희 선수의 단독우표를 발행하였다. 금메달 2개로 전체 순위는 낮았지만, 미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더구나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일본 선수를 이긴 계순희 선수의 선전이 북측으로서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2000년대 남과 북의 현대적인 디자인의 하계 올림픽 우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이다.



- 05 제 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 기념우표 / 북측 / 1989.3.18.
- 06 황영조 선수 마라톤 우승 기념우표 / 남측 / 1992.10.10.
- 07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리학선 선수 / 북측 / 1992.12.20.
- 08 아틀란타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계순희 선수 / 북측 / 1997.2.20.



현장 1_ 2016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통일을 품은 두 개의 씨앗, 재외동포와 청년세대



‘2016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 오션스위츠 호텔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대양주에 있는 10개 지역 민화협 해외협의회 관계자 60여 명을 비롯하여 홍사덕 대표상임의장, 김덕룡 고문, 김금옥 상임의장, 이성현·김형진·김필진·이장희·이병웅·이승환·송광석·유시춘 공동의장 등 민화협 임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민화협 해외협의회들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체회의, 통일 특강,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해외협의회 참가자들

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재외동포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화협 해외협의회, 국제사회의 ‘통일 구심력’ 되길

10월 15일, 개회식 및 환영 만찬으로 3박 4일의 ‘2016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여정이 시작됐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나, 민화협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단체인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다. 많은 용기를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족화해협력이라는

발’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후세대 아이들이 하나의 조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재외 각지에서 ‘통일의 씨앗’을 함께 뿌려나가자”고 제안했다.

본격적인 해외협의회 전체회의는 16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박명규 서울대학교 교수의 ‘통일 특강-남북관계의 현실과 평화통일의 전망’을 필두로 진행됐다. 박명규 교수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지피)”와, “우리의 역량과 비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지기)”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수 요소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파악 및 전 지구적 소통·협력”이 무엇보다도 통일 현실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세계 공조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민화협 해외협의회들의 건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 교수는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사이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국제 변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좌·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대내

정치에서부터 평화를 실천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 역시 대내적 합의와 대외적 지지의 ‘가교 역할’로서, 민화협 해외협의회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화협과 민화협 해외협의회에 대한 기대는 이어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병웅 민화협 공동의장의 연설 및 주제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남북관계는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화협 해외협의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다져나가는 데 ‘제주’도 같은 뜻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당국자 간 소통의 채널을 여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 부문과 함께 열어야 한다”며 “그 모멘텀을 찾는 역할을 제주가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문제를 중심으로 ‘대북인도주의와 남북관계’를 역설했던 이병웅 민화협 공동의장 역시 인도지원에 있어 민화협의 주도적 역할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카고 및 뉴욕 협의회 대표단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시카고 협의회는 10월 8일 ‘한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심포니’를 직접 기획해 성황



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시카고 협의회는 해당 행사가 “동포간의 소통과 협력,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에서 시카고 협의회 차세대 홍보위원은 “세계 각지에 있는 민화협 해외협의회가 언제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는지 알고 싶었다”며,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뉴욕 협의회는 김창중 차세대 위원(YTN World 뉴욕 리포터)의 활동 소감으로 사례 발표를 대신했다. 김 위원은 “취재를 통해 미국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다보니, 해외 각지에 퍼진 우리 활동들이 결국 한국의 외교와도 연결 되더라”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통일 신세대, 청년이 희망이다

‘2016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는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을 비롯해 10여 명의 청년들도 함께 했다. 류혜민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차세대 위원, 권혁민 워싱턴협의회 홍보위원, 윤에서 시카고 협의회 차세대 홍보위원, 그리고 전병화 민화협 제1기 통통드리머 회장 등은 이번 회의의 청년 멤버들이었다. 권혁민 워싱턴협의회 홍보위원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더 넓게’ 알려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로 재외동포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혜민 차세대 위원은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지만 준비하던 일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어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청년 세대가 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기엔 아직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는 것 같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희망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차세대들

아니겠느냐”며 “분명, 청년 세대만의 강점이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현실 유지가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류 위원의 말이 인상 깊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 역시 다양한 루트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6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는 10월 17일 제주 4.3평화공원, 산굼부리 트래킹, 서귀포 해안, 민속5일장 등의 현장탐방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환송만찬을 앞두고 김영은 뉴욕협의회 공동의장은 “민화협 해외협의회 회원으로써 우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도적 차원의 길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은 통일을 점진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소감과 민화협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뜻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북한주민의 생활습관이나 태도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환송만찬 중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임승쾌 대표 상임의장은 “앞으로도 민화협과 한반도 통일을 기도해나가겠다”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행복했던 3일간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젠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겠지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민화협의 취지와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협력해가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통일이 오리라 믿습니다.”

1년 후 더 뜨거워진 통일의 마음으로 만남시다!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저마다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중이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수가 아니기에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꾸준히 갈 길을 걸어왔듯, 청년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적어도 ‘2016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에 참가했던 청년들은 그러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아직 ‘통일을 스케치’하는 단계다. 그리고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무엇을 그릴지 합의하기 힘들다면, 편하게 붓을 들고 옅은 바탕색부터 칠하면 될 것이다.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맑고 옅은 색부터 칠해나가는 것이다. 이후엔 기성세대의 묵직한 색상과 청년세대의 독특한 색상, 한 사람씩 원하는 색을 덧입혀 그림을 채워나가면 된다.

인도주의적 보편가치는 세상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간다움’의 전제다. 그런 점에서 민화협은 국내외적 노력을 필두로 통일의 바탕색을 조금씩 칠해나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기자단을 포함한 청년 세대도 ‘세계’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만의 색’을 덧칠할 훗날을 기다리며... 

<1020통일공감기자단>

권성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년

서희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년



현장 2_ 2016 민화협 통일문화축제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의 희망을 찾는 여정



유독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반가웠던 지난 10월 22일, 1020통일공감기자단은 파주로 향했다. 파주 울곡 수목원 주변으로 '2016 통일문화축제'를 즐기기 위해 알록달록한 관광버스가 모여들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부모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은 푸른 나무에 둘러싸여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주최하고 통일부, 파주시가 후원한 이번 2016 통일문화축제는 약 700여 명의 시민들이 통일희망 자전거 투어와 통일공감 걷기대회, Happy 통일오토캠핑에 참가하며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통일문화축제는 사회자와 참가자들이 '불어라 통일바람, 커져라 통일희망'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시작됐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

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상상하면서 가자"고 말하며, "하나 된 한반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어떤 경우에도 동포들의 주검으로 산을 만들고 동포들이 흘린 피로 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먼저 왕복 28km, 평화누리길 9코스의 자전거 투어 팀이 출발하고 이어서 울곡수목원 일대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도심의 콘크리트를 벗어나 수목원의 부드럽고 폭신한 흙을 밟으며 언덕을 오르니 금세 땀이 맺혔다. 그러나 곧 산들거리는 바람이 어른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아이들은 깔깔대며 저만치 먼저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손당지 않는 그곳,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가파른 길이 끝나고 평평한 길이 나오자 기자단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대회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2년 전부터 통일문화축제에 참가해 온 친구의 추천으로 통일에 관해 생각해볼 겸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5km의 걷기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부에 있는 도라산역로 이동했다. 오전 걷기대회에서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아이들은 내내 들떠 있다가 버스 창가 너머로 보이는 철조망과 무뚝뚝한 병사의 검문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기자단의 판문점 방문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는 벌써 벼가 노랗게 익고 역새가 피어있었다. 분단 이후 70년이라는 세월도 이렇듯 빠르게 지나갔을 것이다.

민통선 내부로 들어 온 참가자들은 먼저 경의선 철도복원 기념조형물 앞에서 이영동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도라산역 승강장으로 들어가자 북한 방향으로 켜진 수많은 정지신호만이 우리를 반겼다. 최근 험악해진 남북 관계의 영향으로 종종 들려온다는 북한의 대남방송마저 중단된 상황이라 주변은 더욱 적막했다. 대신 그곳에는 1989년 허물어진 베를린 장벽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연신 기념촬영을 하며 오래도록 조각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의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듯이.

이어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해 매서운 눈빛으로 긴 지휘봉을 들고 전망대 모형을 가리키며 주변을 설명하는 병사를 보자 아이들은 비로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듯 숙연해졌다.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직접 관찰할 수 있

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곳에서 만난 초등학교 자녀의 어머니 최현숙(35세) 씨는 자녀들에게 통일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축제 참가 전 DMZ와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 있다는 그는 직접 북한접경지에 와보니 통일이 어서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통일, “친구야 보고싶어!”

파주 은사시 힐링 캠핑장으로 돌아온 참가자 가족들은 어린이 통일백일장과 에어바운스 등의 활동을 통해 활기를 되찾았다. 저녁 식사 후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무거운 분위기를 완전히 털어낸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꽃피웠고 MC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부모들 모두 통일의 염원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회자가 진행하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이 끝나고 아이들은 직접 쓴 통일 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가운데 북한 친구에 대해 궁금해 하며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시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통일을 염원하는 아이들의 시가 발표될 때마다 참가 가족들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마지막 순서인 캠프파이어에서 높게 치솟는 홍련의 불꽃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긴장된 일정을 군소리 없이 소화해 낸 아이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소중한 추억이 하늘로 솟구쳐 희미한 불꽃처럼 사라질까 눈을 떼지 못했다. 장차 통일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두 눈에 가득 담고 1020통일공감 기자단은 파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

<1020통일공감기자단>

박윤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송하은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현장 3_ 2016 통일공감 콘서트 & 통일공감 걷기대회

통일의 선율을 느끼고, 남북의 하나 됨을 꿈꾸며 걷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던 지난 10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통일부가 주최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서울신문이 주관한 ‘2016통일공감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통일준비, 그래서 통일입니다’의 주제로 통일공감 콘서트(28일)와 통일공감 걷기대회(29일)로 구성되었다. 콘서트는 통일민간단체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조화를 이뤄 진행되었다. 식전행사의 첫 무대는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였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한 무리의 공연단이 나왔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어 광복 이후 찾아온 분단의 상황을 표현하는 듯, 묘령의 남녀 공연단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서글픈 군무를 펼치기도 하였다. 관객들은 어느덧 숨을 죽이며

그들의 동작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어 남북,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인 통일양상블팀은 남과 북의 악기를 함께 편성해 만든 곡을 연주했고, 통일부 주최 창작 음악 경연대회 ‘유니뮤지레이스’에서 금상을 수상한 인디밴드 험블(Humble)이 ‘하나의 바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열창했다.

메인 콘서트를 알리는 인기 아이돌 ‘여자친구’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통일은 ‘두근거림’, ‘설레임’, ‘미래’라는 대답을 남긴 ‘여자친구’는 신나는 공연을 펼쳐주었다. 이어 북한사투리 노래자랑을 보여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과 가수 유지나, 선진통일건국연합의 무대가 이어졌다. 너버널 퍼포먼스 팀 ‘옹알스’의 개그 공연이 끝나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던 가수 김태우는 대표곡을 열창해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 무대인 가수 김경호가 등장하자 공연은 절정에 달했다. 계속된 공연에 조금 지친 사람들의 반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열렬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합창단과 김경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이 날 콘서트는 마무리되었다.

다함께 걸으며

통일의 하나됨을 생각하자

행사 이틀째인 29일, 서대문 독립공원(안산 자락길 일원)에서는 ‘2016 통일공감 걷기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민화협 상임의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민화협 상임의장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성현 민화협 공동의장, 이경형 서울신문사 주필 등과 통일시민단체 회원들, 일반 시민 등 1,500여 명이 함께했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120년 전 독립투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 광복에 기여했듯, 지금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업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통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쌀쌀한 가을 날 함께 하나 될 동포, 하나 될 강산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본 대회가 “통일 공감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걷기대회가 시작될 당시 기온은 6도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는 약 1,500명이 참가했다. 어린이들과 청년층, 중년·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본 행사장을 찾았다. 곳곳에 가족단위의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애완견 ‘복실이’와 어린 손자를 데리고 걷기대회에 참가한 권장택(인천 서구) 씨는 “우리 손자손녀 세대들은 꼭 넓은 한

반도, 내수가 확장된 통일 한반도 사회에서 좀 더 편히 살길 바란다”며 “이런 염원을 함께 빌고 싶어” 손자와 함께 온 가족이 걷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이북 동포들의 운택한 삶 역시 “또 하나의 염원”이라 덧붙였다.

고등학생 참가자 정문진(18) 씨는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친구와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코스 중간 중간에 마련된 이벤트를 통해 통일과 관련된 것을 더 알아가고, 통일의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통일에 관한 저마다의 염원과 기대를 품은 채 시작된 이번 통일공감 걷기 대회는 6km가량의 순환 코스인 ‘통일 소원’, ‘통일-ing’, ‘통일 바람’, ‘통일 소통’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통일 소원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염원을 쪽지에 담아 매달고,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평화를 기원했다. 6km의 걷기 대회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잠시 동안의 노곤함과 완주의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듯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이화협(가명) 씨는 본 행사에 참가했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통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통일을 위한 준비, 시작할 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오늘 우리가 6km를 완주한 것처럼 언젠가 꼭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들과 민간단체가 함께 했다. 차가운 10월의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에 다시금 자그마한 불씨를 옮겨놓은 듯 보였다. 기자단도 이번 행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열정이 커지기를 염원했다. 🌀

<1020통일공감기자단>

박윤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서희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송하은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민화협, 두만강 수해 지역 어린이 방한복 지원 운동 전개



민화협은 9월 21일 오전 긴급(7차) 의장단 회의(이사회)를 개최해 두만강 유역에 큰 규모의 수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화협 의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 두만강 수해 지역의 1만 7천 가구가 수몰되었다면, 1가구 당 한 명의 어린이이만 있어도 1만 7천명이므로 모금에 종교계의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영하의 혹한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방한복을 보내는 것은 맹자도 말씀 하셨지만 사람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인 측은지심이다. 더구나 같은 민족이고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정부의 구호지원 허가를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다.

1020통일공감기자단 특강 북한 출신 기자가 보는 통일



10월 7일 “북한 출신 기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현안 및 통일문제”를 주제로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여섯 번째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은 함경남도 출신 지성림 연합뉴스 기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지성림 기사는 북한 관련 보도의 어려움과 현재 남북 당국의 강대강 대응 등을 이야기하며, 우리 정부가 민간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모습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기자는 최근 종편에서 방영되는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극적인 말로 북한과 북한주민을 깎아내리는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남한에서 교육받은 젊은 탈북민들은 열린 사고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탈북민 사회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한편, 탈북청년모임 With-U의 대표이기도한 지성림 기사는 강의 말미, 탈북청년들이 통일 시대에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거두고 균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기를 당부했다.

정책위원회 하반기 정책간담회



민화협 정책위원회(위원장 임강택)는 10월 7일과 13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정책위 하반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각 분과별로 김정은 5년의 변화와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10월 7일 진행된 정치외교 안보분과 간담회는 서보혁 정치외교안보분과 간사의 사회로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각각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정치”,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분야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강태호, 고유환, 공용철, 김근식, 김서진, 김종수, 김효은, 남궁영, 박영자, 신상진, 엄상윤 등 민화협 정치외교안보분과 정책위원이 참가하여 토론하였다.

10월 13일 개최된 경제 분과 간담회는 임강택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제분과 간사)이 김정은 5년의 경제 변화와 향후 전망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시장의 실태와 전망을,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의 대외무역 실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권영경, 권태진, 박찬석, 박영호, 장환빈, 정범진, 홍순직 등 경제분과 정책위원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 같은 날 진행된 사회문화분과 간담회에서는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

단 HK연구교수(사회문화분과 간사), 강호제 NKtech 큐레이터, 정은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각각 북한의 문화정책과 과학기술정책,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생활상 등을 발표했다. 이어 이미경, 이수정, 이우영, 조정아, 조한범, 신준영 등 사회문화분과 정책위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발표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올해 말 발간할 예정이다.

2016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포상



민간분야에서 통일운동에 헌신한 이들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2016년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10월 13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민화협 새싹특위 공동위원장)이 국민훈장을, 공용철 KBS PD(〈민족화해〉편집인)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한, 전지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민화협 감사), 황의철 한국예총 사무총장(민화협 문화예술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이현희 민화협 정책홍보팀장, 안정희 회원사업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민화협 공동의장 단체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 송광석)과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통의 변주와 연대 - 분단 코리언의 생활세계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 한국문화사 | 2016. 9

책은 식민과 이산, 분단과 전쟁으로 분열되었던 '분단 코리언'들의 생활세계를 고찰했다. '분단 코리언'은 분단에 규정되면서도 끊임없이 분단 극복과 정체성 재구축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분단 코리언의 이러한 실천방략들은 포스트 통일 시대 우리가 코리언의 민족적 연대를 위해 실천해 나가야 할 문화적 실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1부 만들어진 전통에서는 남북 주민,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이 남북의 지배정책에 규정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의 변주 형식과 내용을 담았다. 제2부 분단 코리언의 연대와 공존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접촉하고 마주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고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각을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로 대별해서 살펴보고, 시론적이거나 남북 생활문화공동체형성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 주민과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분단이라는 상황에 규정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생활양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이다. 필진은 남북의 주민,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분단 코리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생활세계를 추적하고자 했다.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강주원 저 | 놀민 | 2016. 10

단둥은 한국사람, 북한사람, 중국사람, 북한화교 등의 네 집단이 어우러져 생활을 영위하는 국제도시다. '오늘 서울에서 부친 물건이 단둥을 거쳐 모레 평양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분단과 대결의 시각과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단둥에선 국경과 국적을 구별하지 않고 아웅다웅하면서도 오순도순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만의 배타적 공간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투영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강이다. 저자는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이라는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압록강변 단둥 현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존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그 속에서 남북과 국제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압록강과 단둥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 한국 사회를 알아나가고 앞날을 그려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

라본 파르도 저 | 연경문화사 | 2016. 10

국가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King's College London의 교수인 라본 파르도가 2014년 발간한 책이다. 저자는 학습이론과 방대한 1차 자료에 입각하여 학문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순간까지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강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동아시아 지역 정치에서 중심적인 행위자로 급부상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모두 동북아 국제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책에서는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행정부 기간 동안 동북아에서 힘의 역학이 변화하던 시기에 북한의 대미 정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검토하며,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 대미정책의 주요 동인들을 조명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지도부가 사용하고자 노력했던 수단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북한의 대미행태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변화,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정책변화, 국제체제의 역동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을 보다 - 세계적인 석학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오늘과 내일

마귀환 저 | 세종서적 | 2016. 10

중국 최대 경제지 『차이징(財經)』지의 주필 마귀환이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관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묶은 대담집이다. 다년간 중국 개혁 진척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관련 도서들로 저명한 상을 받은 바 있는 저자가 뛰어난 인터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저명인사들과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그 인사 중에는 헨리 키신저, 로널드 코스, 무함마드 유누스, 프랜시스 후쿠야마, 아오키 마사히코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국제 관계, 정부의 역할, 중국 개혁, 정치 전환 등에 관한 저자의 물음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펼쳐보였다.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 등 지난 사건뿐 아니라 부정부패, 정치 민주화, 사회적 불평등, 교육 개혁, 인구 고령화, 환경 파괴 등 가장 최근의 이슈들과 문제점까지 다루고 있어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중국을 전망할 수 있는 지침서로 삼을 만하다. 중국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저자의 질문에서 발전과 개혁에 대한 중국의 치열한 고민과 열망을 읽을 수 있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과제에 낙관과 비관에 치우친 우리의 시각을 되짚어보게 한다.

민화협 사서함

2016 September / October
Vol.82

.....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2호의 정답은 '소년, 소녀를 만나다'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민화협 사서함은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민족화해〉표지를 장식했던 리우 올림픽에서 기계체조 국가대표 이은주 선수가 북의 홍은정 선수와 찍은 셀카 사진은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최근 남북 간 첨예한 긴장 고조로 인해 젊은 층들이 북의 대한 적대감이 심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이 화합하면 통일도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__김병철 서울 중랑구

'북핵 문제 장기화 대비한 스마트 전략 마련해야...'를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지역 안보에 얽힌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제공조에 발맞추는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는 동시에 현재 상태의 핵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지 않도록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도 지속하는 양면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__전경옥 경기도 평택시

통일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이자 미래라는 글귀에 뜨끔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다보니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요. '영화의 힘으로 하나 된 한반도를 꿈꾸다' 기사의 장은연 감독님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반성 많이 했네요. 분단된 이 땅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를요. 남북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감독님. 응원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__박현아 경북 영양군

'다양한 레버리지 확보와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외교 역량 집중해야' 대담을 잘 읽었습니다. 대담 형식이라 실감나고 전문가의 의견을 읽어보니 저의 주관적 생각이 바로 잡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남들이 '이러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걸러지지 않은 것들을 차고차곡 쌓고만 있었으니 고집스런 안 좋은 행동만 나올 수밖에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 잘 담아드립니다. 배움이 있는 〈민족화해〉지네요.

__김영현 전남 여주시

'제재에 따른 북한 변화 평가보다 북 주민 마음 얻는 정책이 중요'를 읽고 남북이 진정한 평화와 전쟁 억제, 통일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서로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흡수통일보다는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 대화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이 우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간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 집니다.

__손흥식 부산시 북구

제14회 민족화해상 추천 바랍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경향신문사는

『제14회 민족화해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민족화해상은 민족의 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준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추천 바랍니다.

추천대상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사회운동 등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민족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시상부문 민간교류 부문, 국민통합 부문, 통일준비 부문

시상내역 3개 부문 각 상패와 상금 500만 원

제출서류 추천서(소정양식), 증빙자료(사진자료·보도자료·활동근거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민화협 홈페이지(www.kcrc.or.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

접수 2016년 11월 7일부터

심사절차 각계인사로 구성된 민족화해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시상식 12월 중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접수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민화협 '민족화해상심사위원회'

전화 : 02-761-1213 이메일 : kcrc1213@gmail.com

「민족화해」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
---	---	---	---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 앞

0	3	1	7	5
---	---	---	---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화해로 평화로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 접취선을 따라 엽서를 자른 후
밀봉하여 보내 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의견> <민족화해>와 <민화협> 활동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Quiz>

민족의 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준비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화협이 제정한 상입니다.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83호 뒷 표지 광고 참조)

정답

<CMS 후원하기> 민화협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 금액이 후원됩니다.

후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후원금액	☐ 월 5천 원	☐ 월 1만 원	☐ 월 2만 원	☐ 기타(월	원)

*CMS 후원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을 위한 CMS자동이체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정답과 의견은 12월 15일 까지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정답과 의견, 후원신청은 팩스(02-761-6590)나 이메일(karapolicy@naver.com)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